

**축산단체장 여의도 단식투쟁 일지
정치권 잇단 방문…
“축산인 생존권 지킬 것”**



FTA반대를 외치며 지난 10월 23일 축산인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 이후 축산단체장들은 결사의 의지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궐기대회 직후부터 국회의사당 앞 국민은행 앞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간 9개 생산자단체장들은 단식투쟁뿐만 아니라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통해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0월 24일 - 단식투쟁 2일차

정치권 대상 축산농가 건의문 전달

축산단체장들은 단식 첫째 날에는 국회 등 정치권에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총궐기대회에서 밝힌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방문해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궐기대회가 열린 10월 23일 오후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오리협회 회장), 한우협회 이강우 회장, 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 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새누리당 대표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

을 각각 찾아 축산농가 건의문을 전달했다.

새누리당을 찾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김무성 대표, 김학용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책금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금리 인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축산농가의 건의내용을 정책위원회 의장이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을 방문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백재현 정책위 의장, 김정현 수석부대변인과의 면담을 가졌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구구절절이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다. FTA의 무효화는 어렵지만 축산농가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FTA에 따른 보완대책이 확실한지, 또 정부가 축산농가들에게 한 약속은 확실히 지켜지고 있는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농성장에는 이기수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 권재한 농축산부 축산국장, 윤봉중 축산신문회장과 이상호 사장, 김태환 농협중앙회 상무 등이 격려 방문했다.

◆ 10월 25일 - 단식투쟁 3일차

축산업계 “희생에 감사” 격려 발길 이어져

축산단체장들은 첫 번째 주말을 맞아 직장인들이 다 빠져나가 텅텅 빈 여의도를 쓸쓸히 지켜냈다.

늦은 밤 10시에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강진)이 농성장을 방문해 “축산단체장들이 오죽했으면 아스팔트 위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겠는가”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당차원에서 축산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날 농성장에는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 이상

영 마사회부회장, 김영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장 등이 위로 방문했다.

◆ 10월 26일 - 단식투쟁 4일차

“그렇다면 부처명에 축산 글자 빼세요”

일요일에는 정치권은 물론 정부에서도 농성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전북 정읍)은 “쌀 관세화로 인해 휴경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휴경논을 보전하고 축산업을 장려할 수 있는 사료작물 재배를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 5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이 방문했다. 단체장들은 이 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농가들의 극한 상황을 정부부처내에서 제대로 전달하고 있습니까”라며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을 이런 식으로 묵살할 거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축산이라는 글자를 빼세요”라고 정부를 향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홍성구 축산과학원장을 비롯 축산관련인사들이 위로 방문했다.

◆ 10월 27일 - 단식투쟁 5일차

중장기적 지원 위한 여야정 협의체 요청

축산단체장들은 단식투쟁 5일차에는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단체장들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로 ‘축산업 회생을 위한 9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10월 30일까지 납득할 수준의 답변이 없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초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우남 위원장과의 면담을 갖고 축산업 중장기적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김우남 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에게 전달 하겠다”며 “국회 역할은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위원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여야정 협의체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농림축산식품위원회와 함께 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인천서구 강화읍)은 농성장을 찾아 “국정감사시 농축산부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와 FTA 추가보완 대책을 촉구하였다”고 밝히고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단식농성장에는 정승 식약처장, 김연화 소비생활연구원장, 이종률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조남조 사료협회장, 박건호 유가공협회장, 허영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김실중 육가공협회 부회장, 선진 김대현 전무, 김용철 농협중앙회 상무, 김준봉 한농연 회장 등이 위로 방문했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4. 10. 29]

경기도, 닭·오리 도축검사 공영화 제도 운영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닭·오리

도축장 공영화 제도에 맞춰 북부관할 4개소 가금류 도축장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축검사관을 배치한다.

경기도는 현재 동두천에 소재한 마니커(가금류 도축장)에 최초로 도축검사관 3명을 배치해 도축검사뿐 아니라 유해 잔류물질 검사, 식중독균 및 미생물 검사 등 다양한 축산물검사와 작업장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화제도는 과거 사측에 고용된 수의사가 가금류 도축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단체 등의 지속적인 신뢰성 문제제기와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삼계탕 등의 수출시 장애가 되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및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부축산연구소에서는 올해 7월 1개소 가금류 도축장을 시작으로 2015년 1개소, 2016년 2개소에 도축검사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은 “가축이 축산물로 전환되는 첫 관문인 도축장에서의 검사 및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금번 닭·오리 검사 공영화를 계기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2014. 11. 09]

**김제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1만여 마리 살처분**

전북도 김제시 인근 한 오리농장이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1만2,000마리가 살처분 됐다.

11월 9일 도에 따르면 AI 의심신고가 들어온 오리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인 것으로 판명됐다. 도는 살처분 조치와 함께 주변 13곳에 차량 통제소와 소독 초소를 설치했다. 도는 고병원성 AI로 판명된 만큼 방역범위를 넓히고, 발생농가 경계 지역(10km)에 위치한 오리농가와 닭 농가에 대해서도 임상검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반경 3km 위험지역에 있는 닭과 오리 농장 6곳에 대해 AI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했으나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도 관계자는 “AI로 확진된 만큼 방역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면서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35사단과 경찰청,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2014. 11. 10]

**전남 곡성 시 발생
오리 4만여 마리 살처분**

전남지역에서 또 AI가 발병했다. 곡성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해 오리 4만4,000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다고 지난 11월 10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곡성군 검면의 한 오리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보내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명됐다.

이에 도는 해당 농장에서 키운 오리 1만1,000여 마리와 인근 농장 2곳의 오리 3만3,000여 마리 등 총 4만4,0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10월 29일 무안군 현경면의 한 오리농장에서 AI가 발병해 오리 1만6,0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한 바 있다.

▶ 뉴스메이커 최정윤 기자 [2014. 11. 11]

전남도, 닭·오리 사육농가 AI 차단방역 시설 신청하세요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닭·오리 사육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AI 등 주요 질병이 연중 발생함에 따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닭·오리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시군서 받는다고 11월 11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중 추가로 '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오리·닭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차단 시설을 지원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AI 등 주요 질병 발생 시 가금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 축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농장주는 물론 계열사도 출하 불가 및 지연에 따라 사

업상 손실을 입게 된다.

오리 산업의 경우, 2014년 발생한 AI에 따른 생산과 수요 감소로 산업 규모는 40% 이상 위축됐다.

앞으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방역시설 미비 또는 방역의무 미이행 농가에서 질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되므로 농가의 손실복구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돼 농가에서는 산업을 안정화하고 소득 보장을 위해 반드시 방역시설을 설치, 주요 질병 발생 차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가금축사 방역시설 지원조건은 기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사업(보조 30%·용자 50%·자담 20%)과 동일하다.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원 요건을 완화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면적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가설 건축물 보유 축사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 범위는 소독시설(대인·차량) 등 방역시설(탈의실·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은 면제(HACCP 인증의무·경영기록부 작성의무 등)하되 일정 수준의 방역시설은 의무화한다. 이차보전 사업 대상자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가금 사육농가는 AI 등 주요 질병 발생 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막대한 축산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가금 사육 농가들이 방역시설을 설치해 질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이 선행돼야 하므로 방역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2014. 11. 11]

농협사료-전남농협, 지역 오리 농가 후원



농협사료(사장 채형석)가 AI(조류 인플루엔자)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지역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전남 농축산물 소비촉진 상생마케팅'에 나섰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1월 10일 농협사료가 후원한 2000만원을 통해 전남 오리농가를 후원하는 판매행사를 가졌다.

소비자들은 12월 21일까지 농협광주유통센터, 나주축협 하나로마트, 텃밭, 영암마트, SM마트 등지에서 나주축협의 오리고기 브랜드인 '해두루 오리'를 20%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전남 농축산물 소비촉진 상생마케팅은 기업체의 후원으로 농업인은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하며,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신개념 마케팅이다.

▶ 전남일보 김성수 기자 [2014. 11. 12]

닭·오리 판매, 위생요건 지켜야

충남도는 전통시장 내 영세 닭·오리 판매점들도 미포장 닭·오리를 판매할 수 있지만, 적절한 위생요건을 지켜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1월 12일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에서도 닭·오리 등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포장을 해야만 판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22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포장하지 않은 닭·오리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미포장 닭·오리 판매를 위해서는 ▲진열시설 내 식육을 보관하되 ▲이물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폐장치가 있어야 하고 ▲소비자가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여야 한다. 또 ▲진열실 내 온도를 영하 2℃에서 5℃까지 유지하고 ▲식육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시판이나 라벨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구분·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진열실 내 얼음을 둘 경우 식육이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는 이번 미포장 닭·오리 판매 허용에 따라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들이 도축장에서 10마리 묶음으로 납품 받아 한두 마리씩 미포장 상태로 닭·오리 고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이른바 '식파라치'들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통시장 내 업소라도 위생요건을 지키지 않고 미포장 상태로 닭·오리를 판매할 경우 단속 대상으로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불교공뉴스 [2014. 11. 12]

「여·야·정협의회」 합의...단식 중단 축산인권기대회 새국면 투쟁본부 축산회관으로



FTA 축산업 회생대책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23일 전국 축산농가 총궐기대회에 이어 15일간의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축산단체장들이 농성을 풀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축산업계 요구사항 관철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단체장들은 지난 11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FTA 축산업 회생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결단과 구성은 늦었지만 매우 고무적이며 환영할 일"이라면서 "마지막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믿고 아스팔트가 아닌 대화의 테이블에 나서는 만큼 축산 농가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4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축산농민의 축산업 회생을 위한 9대 요구사항 논의를 위해 정부(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국회 차원의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축산단체들은 투쟁본부를 비대위 사무국으로 옮기기로 했다.

축산단체장들은 "정부와 여·야 당은 FTA로 피해가 막대한 축산농가를 직접 챙기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면서 "그러나 우리 요구사항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 축종

생축반납 투쟁과 더불어 제2의 강경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축산경제신문 옥미영 기자 [2014. 11. 07]

15일간 단식 끝낸 단체장들



15일간의 단식투쟁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축산단체장들이 병원에 입원해 체력을 회복하고 있다. 왼쪽부터 FTA국회비준반대비상대책위원회 이창호 위원장(축단협 회장, 오리협회장)을 비롯해 한우협회 이강우 회장, 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 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단식투쟁을 끝낸 지난 11월 6일부터 서울 방배동 소재 동국한방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다. 특히 단체장들은 입원 중에도 여야정협의체 활동 사항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11월 11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한편 축산단체들은 여야정협의체에서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축반납 운동 등 다시 한 번 장외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4. 11. 12]

한중FTA 축산물 양허제외 ... 축산인 안도

‘우려’가 ‘안도’로 돌아선 한중 FTA 타결 내용. 축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국내 축산업이 거의 초토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한중 FTA 체결을 반대해 왔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우려’가 일단 ‘안도’로 돌아선 결과에 다행이라는 표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1월 10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FTA 체결을 공식 선언 했는데, 이는 2012년 5월 협상 시작 이후 30개월만에 이뤄진 것.

축산분야 협상 내용을 보면, 양허제외 품목에는 ▲ 쇠고기(신선·냉장·냉동·식용설육) ▲ 돼지고기(냉동삼겹살·냉장삼겹살·냉장기타·돼지족·밀폐가공품) ▲ 닭고기(냉동가슴·냉동날개·냉장육·닭고기가공품) ▲ 분유(탈전지분유·연유·조제분유·혼합분유) ▲ 치즈(신선·가공·기타·체다) ▲ 버터 ▲ 꿀(천연·인조) ▲ 오리고기 ▲ 계란 등이다.

반면 즉시 관세 철폐 품목은 ▲ 소(육우·젓소·기타) ▲ 오리(번식용) ▲ 돼지(번식용) 등이며, 15년 후 관세 철폐품목에는 ▲ 배합사료 ▲ 소시지 등과 20년 후 철폐품목에는 ▲ 유장(사료용) 등이다.

TRQ 품목에는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이처럼 번식용 가축이라든가 저율 관세 품목(돼지비계 3%), 축산 가공품(알부민) 등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품목만 일부 개방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축산업계의 우려를 감안, SPS(동식물위생·검역)의 경우도 지역화 등의 검역주권을 침해할 우려

가 있는 조항들은 삭제하고 FTA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WTO/SPS 협정의 이행 및 양국 간의 SPS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SPS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비관세조치(NTM)에 대해서는 위생·검역(SPS) 및 무역기술장벽(TBT) 사안을 제외한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협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일방 당사국이 확인한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상품무역위원회 산하 작업반을 개최해 협의하기로 했다.

원산지과 관련하여서는 낙농품의 경우 국산 재료를 이용시에만 특혜관세를 적용 받도록 완전생산 기준을 설정했으며, 소시지 등은 수입산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토록 했다.

» 양허제외란

양허는 개방과 비슷한 의미로 개방이 시장을 연다는 뜻이라면 양허는 앞으로 개방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국가간 약속을 뜻한다. 양허제외는 시장 개방에서 제외시킨다는 의미이다.

▶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2014. 11. 12]

허경환 ‘허덕’으로 오리사업 소셜 판매율 1위! “닭이어 오리까지 허덕허덕!”

허경환의 회사 ‘허닭’에 따르면 11월 13일, 훈제오

리 브랜드 '허덕'이 소셜(티몬, 쿠팡, 위메프)종합 동 업종 판매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5일 론칭한 훈제오리 브랜드 '허덕'은 소셜에서만 론칭 한 달 동안 약 15,000개 1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며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 마켓 판매 성장율 1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허경환은 2011년 론칭한 '허닭'에 이어 오리훈제 사업 '허덕'에서도 판매 호조를 보이며 사업 2관왕의 타이틀을 만들어 성공 사업가의 반열에 오르고 있다.

앞서 허경환이 출시한 '허닭'은 2011년 판매 후 꾸준한 자리매김을 통해 온라인 닭가슴살 대표 브랜드로서 약 4년간 항상 최상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누적판매량 560만 개, 누적 회원수 11만 명을 넘어섰으며 대형 3사(하림, 동원, 사조)를 제외하고 국내 최대 판매 기록을 가지고 있다.

'허닭' 관계자에 따르면 "닭 시장과 마찬가지로 오리 시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한 만큼 올해 말까지 현 판매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매출 상승을 앞두고 시장 점유율 높이기 위해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는 판매 반응이 좋아 OEM 공장들과 원료육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4년 동안 좋은 사업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고객 덕분이다. 12월부터 기존 회원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대거 준비했으며 그 첫 번째로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에는 첫 회원 이벤트로 기존 회원들에 대해 빼빼로를 무료로 보내드렸던 이벤트와 '신당동 허경환의 꼬치킹'에서 전 회원에 대해 무료로 맥주와 꼬치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매일신문 [2014. 11. 13]

세븐일레븐, 홍삼 엑기스 발라 구운 치킨 · 오리훈제 출시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양간식 '더커진 홍삼바베큐치킨'과 '더커진 홍삼 오리훈제' 2종을 출시했다고 11월 20일 밝혔다.

'더(The)커진'은 세븐일레븐이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자체 브랜드로, 상품의 중량은 늘리되 중량 대비 가격은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세븐일레븐이 선보인 더커진 영양간식 2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식품으로 가장 선호하는 홍삼을 레시피 기본으로 삼고 있다.

'더커진 홍삼바베큐치킨'은 국내산 닭 한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으며, 홍삼엑기스를 발라 참나무에 훈연하여 기름이 적고 담백하다. 푸짐한 양(550g)에 유사 NB상품 대비 g당 가격도 26% 가량 저렴하다. 또한 치킨무(120g), 머스타드소스(2개), 비닐장갑(2개)이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게 취식할 수 있다.

'더커진 홍삼오리훈제'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인 오리고기(국내산)에 홍삼으로 맛을 더한 참나무 훈연 상품으로 기존 NB상품 대비 g당 단가가 41%나 저렴하다. '더커진 홍삼바베큐치킨'과 마찬가지로 삼무(120g), 머스타드소스(120g), 그리고 나무젓가락이 동봉되어 있다.

한편 편의점에서 식사 대용 상품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용량 저가격'을 표방한 '더커진' 브랜드 상품들의 매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민국 세븐일레븐 신선식품팀장은 "저렴하면서도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이나 안주류에 대한 고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더커진 영양간식 2종

을 출시하게 됐다”며 “더커진 시리즈 상품들이 고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상품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2014. 11. 20]

네덜란드 · 영국 가금류 수입 전면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네덜란드와 영국 검역당국에서 자국내 고병원성AI가 발생한 사실을 발표함(11월 16일, 현지시간)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앵무새 등)와 가금육(닭고기, 오리고기 등) 등 축산물 수입을 지난 11월 17일자로 전면금지했다.

이번 수입금지에는 고병원성AI 바이러스가 국내 가금류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조치이며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

농축산부는 최근 EU 지역에서 고병원성AI 발생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여행객들이 발생지역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가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2014. 11. 19]

한 · 뉴질랜드 FTA 타결... 축산분야 협상 결과

한국과 뉴질랜드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15일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한 가운데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 정상은 호주 브리즈번 시내 숙소 호텔에서 만나 지난 2009년 6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 논의된 한 · 뉴질랜드 FTA를 5년 5개월만에 타결시켰다.

한 · 뉴질랜드 FTA 축산분야 협상 결과 삼겹살, 꿀 등은 양허제외키로 한 반면 쇠고기와 유제품 등은 15년 뒤 관세를 철폐하거나 TRQ(저율관세할당)로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원산지에 대해서는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키로 하고 도축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은 축산분야 협상 결과.

- **쇠고기** = 뉴측 관심품목인 쇠고기에 대해 15년 뒤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정부는 2015년 발효시 한미FTA보다 3년 더 길게 관세를 철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갈비, 도체와 이분도체 등 주요 세 번(8개)에 대해서는 ASG를 설정키로 했다. ASG란, 쇠고기(갈비, 도체와 이분도체 등) 8개 세 번에 대해 대뉴 수입물량이 사전에 합의된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발동수준은 2009년~2011년 평균 수입물량의 110%에서부터 시작하여 관세철폐기간 동안 2% 복리로 증량키로 했다.

- **돼지고기** = 돼지고기 삼겹살, 넓적다리 · 어깨살, 도체와 이분도체는 양허 제외키로 했다. 나머지 부위는 7~8년 철폐키로 했다.
- **닭고기** = 닭다리 · 가슴 · 날개, 통닭은 양허 제외키로 한 반면 삼계탕은 18년 철폐키로 했다.
- **계란** = 종란은 18년 뒤 철폐이고, 계란과 난황은 15년 철폐이다.
- **낙농품** = 원유 수급 조절의 중요 품목인 탈 · 전지분유와 연유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TRQ를 부여키로 했다. 치즈는 7~15년 철폐, 버터는 10년 철폐, 조제분유는 13년, 15년 철폐하면서 각각 TRQ를 부여키로 했다.
- **오리고기** = 냉장육은 15년 철폐, 냉동육은 18년 뒤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한편, 양국은 SPS협정의 경우 WTO 회원국으로서 WTO/SPS 협정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 · 의무를 기초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SPS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위해 연락처 지정 및 SPS 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원산지의 경우,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한 반면 (도축 불인정) 가공품은 수출 가능성을 고려,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2014. 11. 19]

FTA국회비준반대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이 공식 종료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 오리협회장)는 지난 11월 20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5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FTA국회비준반대비상대책위원회의 그동안 활동사항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활동 종료료를 선언했다.

축단협은 FTA에 따른 축산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FTA국회비준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0월 23일 전국축산인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단체장들이 15일간 단식투쟁을 벌여왔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축산업계는 FTA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이끌어 냈으며 여야정협의체에서는 축산정책금리 인하, 도축수수료 인하, 우유소비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하는 합의를 내 놓았다.

이에 따라 축단협은 지난 11월 14일 여야정협의체의 합의안에 대해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이 100% 반영되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수용키로 하고 비대위의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한편 축단협은 향후 여야정협의체의 합의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4. 11. 21]

**FTA비준반대 비대위 활동 종료
축단협, 여·야·정 합의안
수용따라 공식 선언**

**경제 4단체, 구내식당서
농축산물 사용
농축산인 고통분담 차원**



국내 경제 4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소속된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연이은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인들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국산 농축산물 사용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경제 4단체는 지난 11월 20일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구내식당에서 「국산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기업 구내식당 국산 농축산물 공급 확대 노력 △기업 국내 유통망 통한 국산 농축산물 판매 촉진 노력 △사내장터 개설, 명절 우리농축산물 구매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국산 농축산물 수요확대 노력이다.

특히 경제단체는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해외유통망을 활용한 수출판로를 지원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경영정보, 지식, 노하우를 농업·농촌에 이식하는 한편 농촌 소재 기업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경영연수용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양 단체는 협약내용의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해 ‘Agro-Business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김준봉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국내 농업인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와 경제계 간의 협약식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우리농축산물의 소비활성화로 농가에 실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라며 “금번 협약식은 농업계와 경제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변화의 첫 단추”라고 말했다.

▶ 축산경제신문 옥미영 기자 [2014. 11. 21]

**홍콩, 한국 식품의 매력에 푹 빠졌다!
냉동 훈제오리 제품에 관심 보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2014 K-FOOD FAIR’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홍콩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이자 동남아시아로의 유행 전파를 위한 전략시장으로, 홍콩 페어를 통해 안전한 프리미엄 농식품과 한류붐을 활용한 한국 식품을 선보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11월 19일, 홍콩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는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26개사와 홍콩·중국·대만 등 중화권 수입바이어와 필리핀·베트남·싱가포르 등 동남아 수입바이어 총 64명 간의 수출상담회가 진행되어 27백만 불 상당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다.

* (신선농식품 : 9개사) 경남무역(파프리카·딸기·오이 등), 코파(파프리카), K-MUSH(팽이버섯), 풍기인삼공사·소백인삼영농조합 등 6개사(인삼), (가공식품 : 10개사) 대상(장류·홍초 등), 청계원(닭고기육포), 영풍(냉동 떡

복이 등), 철수식품(즉석죽), 다솔(훈제오리), 늘그린(시리얼 등), 한양F&D(이유식) 등 (주류·음료류 : 7개사) 오케이에프(알로에 음료 등), 다정(유자차 등), 배해정도가(막걸리) 등 7개사

바이어들은 주로 파프리카·홍삼 등의 신선 농식품과 가공 닭고기·오리고기 등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파프리카 수출 선도조직인 (주)코파(KOPA)는 홍콩 바이어인 슈풍그룹과 연간 12만 불가량의 현장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일본에 편중된 파프리카 수출시장의 다변화 계기를 마련했고,

* 생산자조직과의 계약재배를 바탕으로 재배매뉴얼 일원화·선별·포장·수출을 일괄하는 규모화된 수출업체로, 정부는 물류·마케팅 등 수출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육성 중('14년, 11개 품목 12업체)

홍삼은 최근 바이어들이 다양한 상표와 제품을 찾고 있어서 시장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남해군흑마늘주식회사가 선보인 흑마늘도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바이어의 관심을 끌었는데, 소량의 샘플을 수출해 본 후 본격 수출을 검토하기로 했다.

냉장 훈제오리 제품과 치즈육포도 주목받는 상품이었다. 훈제오리의 경우, 바이어들은 냉동으로만 들어 유통기간을 늘린다면(냉장 : 4개월 → 냉동 : 1년) 중국시장에 독점 판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치즈육포는 아이템이 시장성이 좋아서 기존 육포 유통시장에 진출이 유망하나, 통관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웰빙문화의 영향으로 죽 제품도 인기가 있었다. 중국 남부·동남아시아에 시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해 할랄인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홍콩의 '침사소이 스타의 거리'에서 개최된 소비자 체험 행사에서는 54천 명이 참여하여 북새통을 이루었는데, 미디어와 빌보드 광고·온라인 등을 활용한 사전 행사홍보 효과로 홍콩 현지인뿐만 아니라 중국·동남아 관광객도 많이 모였다.

특히, 관람객의 관심을 끈 곳은 '한식 처방관'으로 홍콩 대동한의원(한국인이 운영)의 권영국 원장이 관람객의 건강상태를 진단하여 한식으로 처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데, 현지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있었다.

시식행사에 대한 관심도 높았는데, 특히 파프리카·딸기 등 신선 농산물 부스에 관람객의 줄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한국 음식에 대한 현지인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구성한 'K-FOOD 타임라인관'에서는 드라마 '대장금'부터 '별에서 온 그대'까지 드라마에 나왔던 한국 음식과 식재료를 소개했으며, 관람객들은 그 앞에서 연신 사진도 찍고, 행사 관계자에게 상품에 대한 질문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농식품부 수출진흥팀장은 "이번 홍콩 K-FOOD FAIR에서는 기존에 수출되던 상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들을 많이 선보였다"라며,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과 동남아 시장에서 선호하는 상품과 우리 농식품의 장점과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했다. 또 "앞으로 K-FOOD FAIR를 기존 수출상품의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에 대한 시장개척 기회로도 적극 활용하고, 이를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한 신규 농식품 수출업체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2014. 11. 26]